

# 신라와 이슬람 문명의 만남

—해양과학시리즈 2권—



신라초기에는 고구려, 백제 사신과 동반하여 중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때 신라 사신과 조공무역선이 이용했던 항로는 북방항로(서해안 덕적도에 서 출발하여 고구려 연안을 따라 중국을 왕래하던 항로)였다. 국력이

신장된 신라는 진흥왕 25년부터 중국에 단독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는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백제와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와 국제무역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대중국 외교와 국제무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라는 서둘러 해군을 창설 확장하였다. 진평왕 5년(서기 588)에 선부서(船府署)가 신설되고 이를 관장할 태감(太監), 제감(弟監) 각 1명씩을 배치하여 선박의 건조와 해군병사를 훈련시키게 하였다. 점차 무역의 규모가 커지자 선부령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신문왕 8년(688)에는 선부서를 선부경(船府卿)으로 승격시켜 선박 건조와 무역, 그리고 해군의 조직과 훈련을 관장케 하였다. 이렇게 신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강화되자 고구려는 신라의 대당 항로인 북방항로를 완전 봉쇄하였다. 신라는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중국과의 교역로가 막히자 과감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였다. 그것이 바로 황해 횡단로(덕물도-산동반도 소주 왕복)였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발해와의 관계악화로 이 황해 횡단로를 계속 유지 발전시켰다. 이 황해 횡단로로 신라와 중국의 사신과 상선이 오고갔을 뿐만 아니라, 이

슬람인들이 신라에 입국하고 신라의 승려들이 외국유학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 아랍의 역사지리학자인 이븐 쿠르다지바는 그의 저서 「제도로 및 제왕국지」에 8세기 무슬림들이 본 신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중국의 맞은 편에는 많은 산과 왕국들이 있는데 그곳에 바로 신라국이 있다. 이 나라는 금이 많으며 무슬림들이 일단 들어가면 그곳의 훌륭한 때문에 정착하고 만다.”

알 마끄디시는 그의 저서 「창세와 역사서」에 신라의 자연환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중국의 동쪽에 한 나라(신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곳이 공기가 맑고 부유하며 땅이 비옥하고 물이 좋을 뿐 아니라 주민의 성격이 또한 양순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천문지리학자였던 앳 디미시기는 「대륙과 대양의 경이에 대한 시대적 정선」이라는 저서에서 신라의 지하자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신라는 여러 종류의 강옥(鋼玉)과 귀중한 보석으로 충만된 좋은 지층을 가지고 있다……. 광산, 지하광 및 강바닥에 귀중한 보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증언처럼 신라시대의 고분과 유적에서는 각종의 보석과 금은 주옥들이 다량 출토되는데 그 공예기법이 뛰어남을 볼 수 있다. 8세기에 신라가 무슬림들에게 관심을 끈 것은 풍부한 황금이였다. 금동불상과 범종은 신라의 금속공예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금의 광범위한 용도와 다산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신라의 황금에 대한 아랍 무슬림들의 관심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라의 연금술이 아랍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다. 일반적으로 금속공예의 발달은 연금술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연금술의 내

용은 크게 두가지의 화학 기술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동, 납, 주석, 금, 은 등 금속 제조기술이고, 둘째는 불노장생의 선약제조술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도가사상에 힘입어 진사(辰砂)와 황금을 배합하여 선약을 만드는 것을 연단술이라 하였다. 「신농본초」(神農本草)는 연단술과 약물학을 집대성한 것인데 여기에 인삼과 금설(金屬)을 포함한 11종의 한국 약재가 소개되어 있다. 이책은 금가루인 금설은 독이 있어 정련하여 복용치 않으면 죽지만 한국의 금설은 잘 정련되어 효험이 좋은 진약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신라의 연단술 재료와 기술이 아랍상인을 통해 아랍 여러 나라에 전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를 다녀왔으며 한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아라비아 현지 전문록을 남기고,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 중앙아시아에 관한 귀중한 지식을 소개, 전달함으로써 동서문화교류의 개척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저서는 8세기 무렵의 인도와 중앙아시아 및 페르시아와 아라비아에 관한 생동적이고 정확한 기록으로 이방면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8세기의 신라와 이슬람 문명의 만남은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랍 이슬람문명의 재도전이라는 사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석유 위기가 닥칠 때만 아랍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헤초처럼 살아 숨쉬는 연구와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 헤초의 왕오천축국전

아랍 무슬림들 만이 일방적으로 신라로 입국한 것은 아니다. 같은 시기에 신라인들도 아랍 무슬림의 여러 나라를 순방하였는데 그 기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라의 고승 혜초(慧超)의 「往五天竺國傳」이다. 약관 16세(성덕왕 18년)에 황해 횡단로를 통하여 당나라에 들어간 혜초는 인도의 고승 金剛智와 그의 제자 不空을 만나 불교의 발원지를 순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는 아랍인들이 개척한 해상 비단길을 따라 인도에 가게 되었으며, 약 4년간 인도와 아랍 무슬림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당나라 장안으로 돌아왔다. 신라출신의 고승 혜초의 아라비아 역방은 신라와 아랍 무슬림 여러 나라의 관계사뿐만 아니라 동서문화 교류사에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즉 혜초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아라비

불행하게도 신라와 아랍문명의 만남에 이용되었던 선박의 구조를 밝힐만한 자료는 없다. 신라 초기의 토용(土俑)에 나타난 배의 모형과 안압지에서 발굴한 소형쪽배를 토대로 하여 황해바다를 횡단하는 배를 추측할 때, 평저선에 돛과 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인간의 창조의 위엄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몇 개월을 보낸 후  
 에 그들의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 모두에게  
 어머니의 몸 속에서 똑같이 완벽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 모두는 똑같은 단계를 거쳤던 것이다.

출생은 하나의 위대한 기적이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서 특별하게 보호받도록 준비된 방 속에서 발육하는 애  
 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 기적 같은 사건의 세부사항들  
 은 그것을 꼼꼼히 생각해보는 모든 사람  
 으로 하여금 대단히 중요한 결론을 내리  
 도록 해준다. 애기의 발육에 중요한 세부  
 사항을 관찰함으로써 우리 함께 이 결론  
 에 이르도록 해보십시오.

태반은 수태된 알을 자궁의 벽에 고착  
 시키기 위해 산모의 몸에 의해 형성된 하  
 나의 살 조직이다. 태반은 발육하는 애기  
 에게 도움을 주도록 되어있는 부드러운  
 혈관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 혈관들은  
 나뭇가지들처럼 생겼다. 태반 안에서는,  
 산모와 애기의 혈관들이 서로 얽혀 물질을 교환한다. 그  
 두 피는 결코 섞이지 않지만 산모의 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가 교차하여 애기의 피 속에 들어가고 노폐물은 애  
 기의 피로부터 나와 마침내 산모에 의해 배출된다. 태반  
 의 이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조직은 애기  
 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하고 또 애기를 보호  
 하기 위하여 선택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태반을  
 위하여 이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용모막이라고  
 불리우는 막이다. 이 막은 애기의 혈액 순환과 산모의 혈  
 액 순환을 분리시킨다. 이 막에 의하여 산모의 피는 애기

의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없다. 애기는 이 막을 통해서 오  
 직 산소와 영양분 만을 받아들인다.

애기가 첫째 달에 필요로하는 영양분은 출생 직전의  
 여덟째 달과 아홉째 달에 필요로하는 것과 다르다. 태반  
 은 영양분의 소비에 있어서 또한 이것에 적응해야만 한  
 다. 사실상, 태반은 이러한 모든 기능을 아무 경험 없이  
 수행해낸다. 태반은 선택적이고 조심스럽  
 게 무엇으로부터 얼마나 받아들여야만 하  
 는지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다. 여기에, 반  
 드시 물어보아야만 하는 몇 가지 질문들과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점이 있다.

제일 먼저, 세포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  
 직인 태반이 어떻게 이러한 계산들을 할  
 수 있는냐는 질문이 생긴다.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태반이라고 불  
 리우는 한 조각의 살이 스스로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으며 우연히 그러한 특징  
 을 획득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즉각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부

딛치게 되는 사실은 또 다시 매우 분명한 것인데, 그것은  
 알라께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애기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특징들을 지니도록 태반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출생의 기적은 창조에 있어서의 알라의 예술적 수완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다른 예이다. 우리는 꾸란  
 에서 이 사실을 상기받은바 있다.

“인간들이여, 너희의 고귀하신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너희를 현혹했느냐? 그분께서 너희를 창조하고 형성을  
 만들고 균형을 주시었고 그분이 원하시는 형태로써 너희  
 를 지으셨도다.”(82장, 6~8절)



## 고등화된 공기 조절 장치, 완벽한 지각기관인 피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잡지의 페이지들을 쉽게 뒤집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두 손이 페이지들의 결을 움켜잡고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예를 들면 유리컵 같은 부드러운 표면을 지닌 물체들을 잡고 운반할 수도 있다. 깃털을 건드리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고 돌맹이를 건드리면 딱딱함을 느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감지하고 당신의 뇌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는 당신의 피부는 당신으로 하여금 뇌 속에서 물체들을 시각화하게끔 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손가락 끝에는 상당히 많은 신경들이 있다. 이것은 당신에게 움직임에 있어서의 수월함을 제공하며 그 어떤 불편도 야기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예를 들면 사람의 등과 같은 보다 덜 중요한 부위에는 신경들의 수효가 더 적게 존재한다. 이것은 중요한 이점이다. 자, 정반대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우리의 손가락 끝들이 대단히 둔감하고, 우리 몸의 등에 상당히 많은 수효의 신경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틀림없이, 대단한 불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두 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피부는 복잡한 기관으로 많은 층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지, 순환 통로, 환기 시스템, 열, 그리고 태양 광선을 차단하는 방패물처럼 신체를 보호하는 습기 조절장치를 위한 신경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피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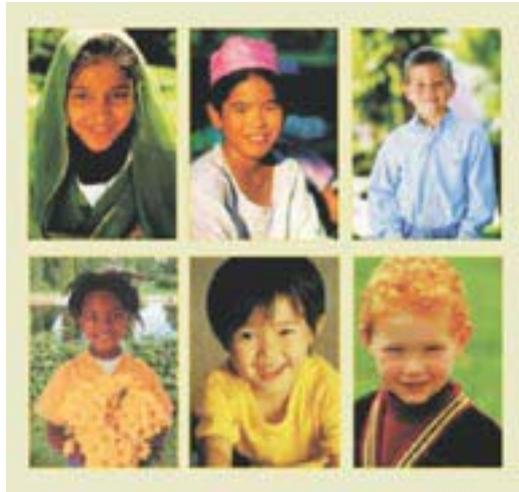
일부분이 손상당한다면 사람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피부 밑에는 지방으로 구성된 층이 있다. 이 지방층은 열을 차단하는 절연기의 역할을 한다. 이 층 위에 또 다른 층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피부에 탄성을 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피부를 들어올려 피부 밑의 1센티만 쳐다

보아도,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흉칙한, 심지어 무서운 것일 것이며, 지방질들, 단백질들, 그리고 다양한 혈관들이 나타날 것이다. 피부로 하여금 이러한 구조들을 뒤덮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에 의하여, 피부는 대단히 중요하며 미학적인 기여를 해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외부의 요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인간의 피부는 몸 속의 수분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아주며, 강하고 탄성이 있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유지시켜주며, 춥거나 더운 날씨에서 몸의 온도를 보호해준다.

민감한 탐지기와 온갖 종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고등화된 공기 장치의 기능을 하는 인간의 피부는 알라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천혜로, 인간을 창조하신 알라의 위엄을 드러내보이는 것이다.



# 이번 달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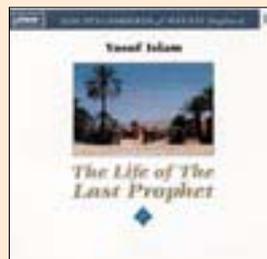
**질문 :** 무슬림들은 예수를 증오하는가?

**대답 :** 흔히 이슬람에서 예수를 거부하듯이 보이는 것은 오직 서구적 관점에서 이슬람을 왜곡시켜버린 탓이다. 무슬림들은 예수를 사랑하도록 가르침 받는다. 누구든 처녀 잉태설과 예수 그리스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 시기들)의 기적들을 믿지 않고서는 무슬림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슬람에서는 3위1체설을 거부할 뿐이다. 그 이유는 3위1체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후에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한 기독교에서 교회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이다. 즉, 오직 한 분이신 하

나님을 믿는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분이시다는 것을 당연히 거부할 뿐이다. 꾸란 11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낳지도 않고 낳아지지도 않는 분이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다.

요컨대, 무슬림들은 하나님 중의 한 분이거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파견하신 특히 중요한 다섯 분의 사도들(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중의 한 분으로서 믿는 것이다.

## CD 제작!



우리 국제무슬림학생연합회에서는 유스프 이슬람(Yusuf Islam)이 녹음한 마지막 사도님의 일생을 한국어판 CD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재정상태가 빈약하여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적은 돈이나마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은행, 계좌번호 214-047841-12-00

예금주: 일반 자밀

E-mail: muslimkore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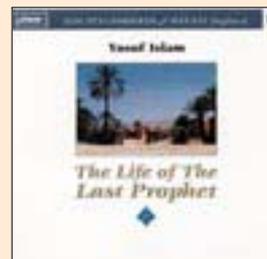
# Question of Month

**Question:** Do Muslims hate Jesus?

**Answer:** Many non-Muslims are surprised to find out that according to Muslim belief, Jesus, the son of Mary, is one of the greatest messengers of God. Muslims are taught to love Jesus, and a person cannot be a Muslim without believing in the virgin birth and miracles of Jesus Christ(peace be upon him). Muslims believe these things about Jesus not because of the Bible or any other religion, but simply because the Holy Qur'an says these things about Him. However, Muslims always emphasize that the miracles of Jesus, and all other prophets, were by "God's permission". This having been said, many Christians feel to not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God Incarnate" or the "Third Person" of the Trinity. This is because the Qur'an clearly says that Almighty God does not have a "Son" --- neither allegorically, physically, metaphorically or metaphysically. The Pure Monotheism of Islam rejects the notion of "defining" God (which is basically what the "Doctrine of the Trinity" does), saying that someone is "like" God or equal to him, or praying to someone else besides God. Also, Islam teaches that titles such as "Lord" and "Savior" are due to God alone. In order to avoid misunderstanding, it should be clarified that when Muslims criticize the Bible or the teachings of Christianity, they are not attacking "God's Word" or Jesus Christ(peace be upon him). From the Muslim point of view, they are defending Jesus and

God's Word --- which they have in the form of the Qur'an. Muslim criticism is targeted at writings that some people claim are God's word, but Muslim's simply don't accept their claim that they are really God's word in toto. Additionally, Christian doctrines such as the Trinity and the Atonement are criticized by Muslims precisely because they did not originate from Jesus(peace be upon him). In this way, Muslims are the true followers of Jesus(peace be upon him), because they defend Him from the exaggerations of the Christians and teach the Pure Monotheism that Jesus himself followed.

## CD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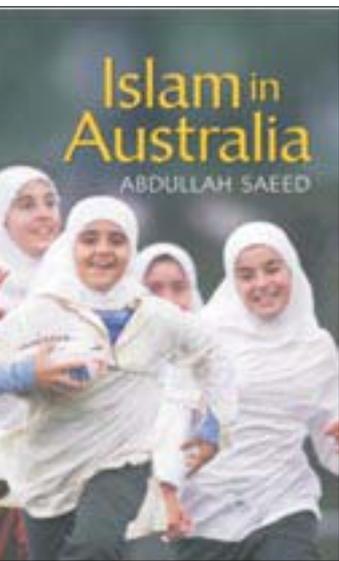


International Muslim Students Association of Korea has decided to make a cd in Korean Language entitled 'Life of the Last Prophet' written by Yusuf Islam. We need your financial contribution.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send mail to [muslimkorea@hanmail.net](mailto:muslimkorea@hanmail.net)

Bank Information: Woori Bank,  
Account number: 214-047841-12-001, To: Ifan Jamil  
E-mail: [muslimkorea@hanmail.net](mailto:muslimkorea@hanmail.net)

# 호주에서의 이슬람



호주는 의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조로 건립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복합 문화를 가진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호주는 140개 국 이상의 나라들로부터 온 민족들로 구성된 나라이며 세계의 모든 주요한 언어들, 문화들, 전통들 그리고 종교들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무슬림들은 호주의 다양한 현대적 사회의 날로 증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6년에 실시한 호주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호주에서 무슬림들의 인구

가 급격히 성장했음이 드러났다. 그 조사에 의해 호주의 무슬림 인구가 200,885명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15년 동안에 약 161퍼센트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호주의 전체 인구의 증가폭이 불과 21.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꼭 대조적인 것이다. 오늘날 호주가 지배하는 모든 국가들과 영토에 무슬림 공동사회들이 있다.

삼분의 일 이상의 호주의 무슬림들이 호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로, 이러한 이세대, 삼세대 호주의 무슬림들은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그리고 언어적 배경을 지닌 새로이 호주에 도착한 무슬림들은 호주의 이슬람 가족으로 영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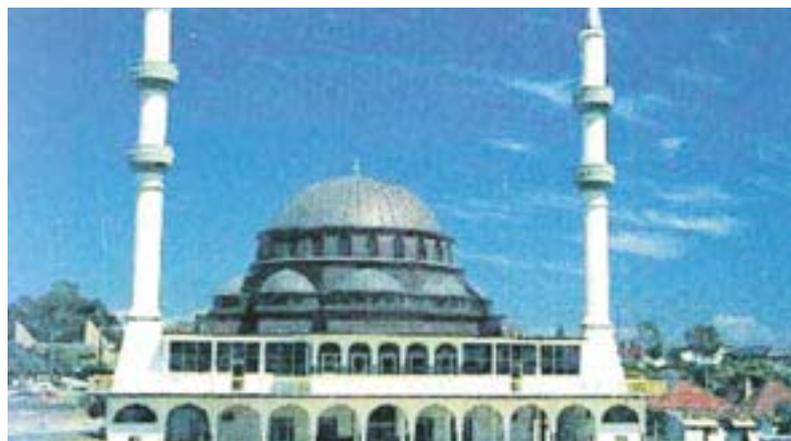
호주의 무슬림 공동사회는 60개 국이 넘는 나라들 출신의 사람들로 단단한 기반위에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의 보다 더 넓은 사회의 통합적인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 공동사회는 광범위한 지역적 그리고 민족적 조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슬람 학교들과 모스크들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무슬림들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교육적 발전과 같은 다양한 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그 공동사회의 조직적 기반은 100을 훨씬 넘기는 그룹들을 포함하여 무슬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무슬림 공동사회를 대표하는 이슬람 평의회가 설립되었다.

호주에는 10개의 이슬람 초등학교와 11개의 초·중등학교가 있다. 무슬림 학생연합회가 각 대학교 및 대학에 마련되어 있어 호주에 새로이 온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친근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호주에는 주로 New South Wales와 Victoria 지역에 약 100개의 모스크가 있다.

## 호주와 이슬람-오랜 역사-

호주에서의 이슬람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전인 초기에 호주 방문객들 중의 일부는



멜버른 성원

## 나는 왜 무슬림이 되었나?

Justin Cleland 여사 [라쉬다] (호주인)

나는 나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무슬림이 되었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린 나이에 나는 벌써 기독교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반감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종교적 사실들에 대해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애썼던 신조를 맹목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 세 분의 신이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은 몸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왜 우리는 속죄를 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사제를 통해서만 알라를 접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가르치는 사제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마다, 그들은 화를 내며 대답하기를, “당신은 교회의 가르침의 내부적 속성에 대해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비밀입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일은 그것들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은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본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나는 나의 이러한 생각들을 감히 폭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대부분의 종교적 가르침을 믿지 않지만, 그것을 누설하기가 두려울 뿐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는 기독교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로부터 단연코 결별하게 되었으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가르치는 종교가 없을 까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의 모든 양심과 가슴은 나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 사제들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애썼던 그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것, 인간, 짐승, 숲, 산, 바다, 나무, 꽃들은 위대한 창조주께서 그것들을 창조했음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는가? 그와는 반대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모든 신생아는 죄를 지은 피조물이라는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며, 거짓말이다. 모든 신생아는 순진무구한 알라의 피조물인 것이다. 나는 오직 알라만을 그리고 그 분이 창조한 기적들을 믿게 되었다.



동부 인도네시아 군도로부터 온 무슬림이었다. 그들은 Macassar섬에서 온 어부들과 무역업자들로 16세기부터 호주의 북부를 방문하여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의미있는 반 영구적 무슬림 인구는 1800년대에 아프리카니스탄에서 온 사람들로 그들은 낙타 몰이꾼이었다. 이 낙타 몰이꾼들은 호주의 광대한 건조한 내륙 지역을 여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탐험가들과 개발업자들을 실어날랐고 말이나 도보로 겨우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에다가 전신 시설을 설치하였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신민지들로부터 또한 소수의 무슬림들이 징발되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호주의 진주 산업에서 일하게 되었다.

1861년에 호주의 최초의 모스크가 Marree에서 건립되었다. 1890년에 최초의 대형 모스크가 Adelaide에서 건립되었다. 1891년에 또 다른 모스크가 New South Wales의 Broken Hill에서 건립되었다.

호주의 현대적 무슬림 인구의 진정한 기반을 형성한 사람들이 2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오게 되었다. 1947년과 1971년 사이에 주로 키프로스섬의 터키인들이었던 유럽의 무슬림들이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찾음에 따라 무슬림 인구는 2,704명에서 22,31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본래부터 죄를 지었거나, 더럽거나, 추잡한 것은 없다. 내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던 어느날 나의 딸이 이슬람에 대해 쓰여진 책 한 권을 들고 집에 왔다. 나의 딸과 나는 함께 앉아 꼼꼼하게 그 책을 읽었다. 그 책은 내가 이제껏 생각해오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이슬람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존재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순진 무구한 존재들로 태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 때까지 나는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학교에서, 이슬람은 조소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그 종교는 거짓이고 불합리하며 사람에게 나태함을 주입시키고 또 무슬림들은 지옥에 갈거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었다. 그 책을 읽었을 때 나는 많은 생각들에 잠기게 되었다. 이슬람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나는 나의 도시에 사는 무슬림들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들이 나의 질문에 해주었던 대답들은 너무나 논리적이었기에 나는 이슬람이 우리의 사제들이 단언하여 왔던 것처럼 날조된 종교가 아니라 알라의 진정한 종교임을 믿기 시작했다. 나의 딸과 나는 이슬람에 관한 많은 다른 책들을 읽었고 마침내 이슬람을 끌어안았다. 나는 '라쉬다'라는 이름을, 그리고 나의 딸은 '마흐무다'라는 이름을 받아들였다.

“이슬람의 어떤 모습을 당신은 가장 좋아합니까?”라는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이슬람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 기도의 성격이다.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부, 지위, 그리고 명예와 같은 세속적 은혜를 구하기 위해 말하여진다. 대조적으로, 무슬림들은 알라에 대한 그들의 계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구할 필요 없이 그들이 필요한 무엇이든 알라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알고 있다.

## ● 사회 정의 평의회가 직장에서 예배할 무슬림들의 권리를 지지하다

호주의 키틀릭 사회 정의 평의회와 성 마리아 성당의 주임사제의 후원을 받은 한 성명사가 고용주들에게 무슬림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 시간 중에 예배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촉구했다.

## ● 호주의 원주민들이 이슬람에 귀의하다

-2003년 3월 31일 월요일 시드니 Phil Mercer-

호주의 젊은 원주민들의 날로 증가하는 인구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슬람은 그들에게 억압을 모면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이유로 이슬람을 포용하였다.

호주의 토착민들은 언제나 불리함을 당하여 왔다. 그들은 그 어떤 부류보다 고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며 감옥에 갈 가능성 또한 훨씬 더 크다.

적지만 날로 늘어가며 수효의 젊은 원주민들이 이제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는데 오늘날 약 1,000명의 원주민 무슬림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Islam in Australia

**Australia is one of the world's most successful multicultural societies, built on parliamentary democracy, rule of law and a market economy. It comprises peoples from more than 140 different nations and encompasses all of the world's major languages, cultures, traditions and religions.**

Today, Muslims form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of Australia's diverse modern society. The most recent Australian Census in 1996 revealed a remarkable rate of growth in Australia's Muslim population. The Census listed 200 885 Australian Muslims, an increase of some 161 per cent in 15 years, while the Australian population as a whole only grew by 21.7 per cent in the same period. These figures may be very conservative. Some recent estimates suggest Australian Muslims now number more than 300,000.

There are now Muslim communities in all Australian States and Territories . Significantly, more than one-third of Australian Muslims are born in Australia. These second- and third-generation Australian Muslim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newly arrived Muslims from diverse cultural, sect, national and linguistic backgrounds into the family of Islam in Australia.

Australia's Muslim community, drawn mostly from than 60 different countries, is a well-established and

integral part of Australia's broader society. The community has a range of regional and national organisations as well as its own Islamic schools and mosques. Muslims have made contributions in a wide range of endeavours, including social, economical, cultural, religious and educational advancement.

The community's organisational base includes well over 100 group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Muslims at the local or at regional level. Additionally, Islamic councils representing the broader Muslim community



Auburn Gallipoli Mosque



have been established in all Australian States and Territories. They come together in a peak national body, the Australian Federation of Islamic Councils.

There are ten Islamic primary schools in Australia and a further 11 primary and secondary combined schools. At the tertiary level, Muslim Students Associations cater for Muslim students at universities and colleges and provide a familiar setting for newly arrived international Muslim students.

Today there are approximately 100 mosques in Australia, mainly in New South Wales and Victoria.



## Australia and Islam a long history

Muslims in Australia have a long history. Some of Australia's earliest visitors, pre-dating European settlement, were Muslims from the east Indonesian archipelago. It is thought fishermen and traders from the island of Macassar had been visiting Australia's north back from the 16th century. However, the first significant semi-permanent Muslim population came in the form of Afghan camel drivers in the 1800s.

These camel driver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opening up Australia's vast arid inland areas, carrying explorers, developers and even the telegraph to places barely accessible by horse or on foot.

Small numbers of Muslims were also recruited from Dutch and British colonies in Southeast Asia to work in the Australian pearling industry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Australia's first mosque was built at Marree in 1861. The first major mosque was built in Adelaide in 1890. Another was built in Broken Hill (New South Wales) in 1891.

The real basis for Australia's modern day Muslim population came in the wake of World War II. Between 1947 and 1971 the Muslim population increased from 2704 to 22 311, as European Muslims, mainly Cypriot Turks, sought a new life in Australia.

## Why did I become a Muslim?

Mrs. Catherine Cleland  
[Rashida] (Australian)

Let me tell you sincerely that I became a Muslim without even noticing it myself. For, at a very young age I had already completely lost my confidence in Christianity and had begun to feel apathy towards the Christian reli-

gion, I was curious about many religious facts, I was disinclined to believe blindly the creed they were trying to teach me. Why were there three gods? Why had we all come to this world sinful, and why did we have to expiate it? Why could we invoke Allahu Ta'ala only through a priest? And what were the meanings of all these various signs that we were being shown and the miracles that we were being told? Whenever I asked these questions to the teaching priests, they would become angry and answer, "You cannot inquire about the inner natures of the church's teachings. They are secret. All you have to do is to believe them." And this was another thing that I would never understand. How could one believe something whose essence one did not know? However, in those days I did not dare divulge these thoughts of mine. I am sure that many of today's so-called Christians are of the same opinion as I was; they do not believe most of the religious teachings imposed on them, yet they are afraid to disclose it.

The older I became the farther away did I feel from Christianity, finally breaking away from the church once and for all and beginning to wonder whether there was a religion that taught "to worship one single God." My entire conscience and heart told me that there was only one God. Then, when I looked around, the events showed me how meaningless the unintelligible miracles that priests had been trying to teach us, and the absurd stories of saints they had been telling us, were. Didn't everything on the earth, human beings, beasts, forests, mountains, seas, trees, flowers indicate that a great Creator had created them? Wasn't a newly born baby a miracle in itself? On the other hand, the church was striving to indoctrinate the people with the preposterous belief that every newly born baby was a wretched, sinful creature. No, this was impossible, a lie. Every newly born child was an innocent slave, a creature of Allahu Ta'ala. It was a miracle, and I believed only in Allah and in the miracles He created.

Nothing in the world was inherently sinful, dirty, or ugly. I was of this opinion, when one day my daughter came home with a book written about Islam. My daughter and I sat together and read the book with great attention. O my Allah, the book said exactly as I had been thinking. Islam announced that there is one Allah and informed that people are born as innocent creatures. Until that time I had been entirely ignorant of Islam. In schools Islam was an object of derision. We had been taught that, that religion was false and absurd and infused one with sloth, and that Muslims would go to Hell. Upon reading the book, I was plunged into thoughts. To acquire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Islam, I visited Muslims living in my town. The Muslims I found opened my eyes. The answers they gave to my questions were so logical that I began to believe that Islam was not a concocted religion as our priests had been asserting, but a true religion of Allahu Ta'ala. My daughter and I read many other books written about Islam, were fully convinced as to its sublimeness and veracity, and eventually embraced Islam, both of us. I adopted the name 'Rashida', and my daughter chose 'Mahmuda' as her new name.

As for the second question that you ask me: "What aspect of Islam do you like best?" Here is my answer:

What I like best about Islam is the nature of its prayers. In Christianity prayers are said in order to ask for worldly blessings such as wealth, position and honour from Allahu Ta'ala through Issa a.s.. Muslims, in contrast, express their gratitude to Allahu Ta'ala and they know that as long as they abide by their religion and obey the commandments of Allahu Ta'ala, Allahu Ta'ala will give them whatever they need without them asking for it.

## ● Social Justice Council supports Muslim's right to pray at work

A statement backed by the Australian Catholic Social Justice Council and the Dean of St Mary's Cathedral, Monsignor Tony Doherty, urges employers to be "open-minded and flexible" in response to requests to allow Muslim workers to pray during working hours.

The statement, which is also signed by a range of other Christian, Jewish and Muslim leaders, follows threats by Sydney IT company TPG to sack a Muslim worker for a 10 minute break he took for prayers.

## ● Aborigines turn to Islam

*By Phil Mercer, BBC, Sydney Monday, 31 March, 2003*

A rising number of young Aborigines in Australia are converting to Islam.

Many have embraced the religion for spiritual reasons, while others insist, it gives them a way to escape the oppression suffered by the country's indigenous population. Australia's indigenous people are disadvantaged at almost every turn.

A small but growing number of young Aboriginal men are now turning to Islam, and it is now estimated there are 1,000 Aboriginal Muslims in Australia, including new recruits and descendants of mixed marriages.

They say it gives them the inner strength to meet the challenges facing black Australia. The majority of Aborigines are Christians, converted by European settlers.

Indigenous communities first came into contact with Islam more than 150 years ago when Afghan camel trains helped open up Australia's harsh interior.

These two vastly different groups – an ancient native people and Middle Eastern traders – found they shared a similar sense of spirituality. Many converts believe the discrimination they endured growing up as Aborigines has prepared them well for life as a Muslim in Australia.



**Leading exporter**  
**M. Shariq Saeed**

**PH no.:** 82-2-2631-8557

**Fax:** 82-2-2631-8281

**http://**[www.shariq.co.kr](http://www.shariq.co.kr)

**e-mail:** [shariq@shariq.co.kr](mailto:shariq@shariq.co.kr)

# 이슬람에서의 예배(살라)



예배(살라)는 아랍어로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정신적 관계와 의사소통을 뜻하는 말이다. 매일 창조주께 올리는 예배는 사람의 마음속에 건강한 인품을 기르고 그 분에 대한 동경심을 현실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알라께서는 모든 욕구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으로 그 이익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 혜택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배를 말하면 신체의 모든 근육이 영혼과 마음을 결합시켜준다. 예배는 경배의 한 행동이다. 예배는 비길바 없고 전례 없는 신앙 형식으로 지적인 명상, 정신적 헌신, 도덕적 고양 그리고 육체적 운동을 모두 결합한 것이다.

인간이 이슬람의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한하여 예배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하나의 “이론”이나 상투적인 가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흥미진진한 사실이며 영적인 체험이다. 다음에 이슬람 예배의 효과를 설명한다:

1. 알라의 존재와 선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키며 이런 신념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게 한다.
2. 이러한 신념에 생기를 주는 한편, 실생활에서 그것이 건설적으로 작용하게 한다.
3. 인간에게 도움을 베풀어 위대성과 숭고한 윤리 우월성과 원숙한 덕에 대한 천부적·본능적 열망을 실현

하게 한다.

4. 마음을 정화하고, 정신을 계발(啓發)하여 양심을 길러 주고 영혼을 위로한다.
5. 인간에게 선하고 예의바른 기질을 함양시켜, 악하고 무례한 성향을 억제시킨다.

이슬람의 예배를 분석하여 그 독자성을 연구해 보면, 이슬람의 예배가 단순히 신체 동작이나 성서의 공허한 낭송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것은 지적인 명상과 영적 헌신 그리고 윤리적 향상과 신체 운동 모두를 총괄하는, 독자적이고 유례없는 신앙 형식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슬람적인 체험인 바, 예배하는 동안 신체의 모든 근육이 영혼과 정신에 합일하여 알라를 숭배하고 그 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슬람 예배의 완전한 의의를 말로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는 있다. 이슬람 예배는…

1. (심신)단련과 의지력의 수업이다.
2. 알라와 모든 가치 있는 목적에 대한 헌신의 실습이다.
3. 알라와 부단히 계시되는 그분의 선을 빈틈없이 상기시킨다.
4. 영적 수양과 윤리적 건전성의 씨앗이다.
5. 생의 가장 곧은길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6. 무례와 악, 그릇된 탈선과 이탈에 대한 방어수단이다.
7. 진정한 평등과 확고한 통일성과 형제애의 시현(示顯)이다.
8. 알라께 대한 감사와 인식의 표시이다.



9. 마음의 평온과 안정의 길이다.

10. 인내와 용기, 희망과 자신의 풍부한 원천이다.

이것이 이슬람의 예배이며, 그것이 예배가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혜택이다. 예배를 실제 체험해 보고 그것이 주는 영적인 즐거움에 젖어 보면 이 말이 실감나게 된다. 그런 연후에야 예배의 진정한 의의를 알게 될 것이다.

예배를 근행하는 것은 성인인 제정신인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지는 의무이며 월경중이거나 출산으로 인한 해산을 한 여성은 제외된다.

예배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 우두(세정)하기, 온 몸을 깨끗하게 하기, 정숙한 옷차림, 의도(니야)하기, 얼굴을 메카에 있는 카아바(성전)으로 향하게 할 것.

### 예배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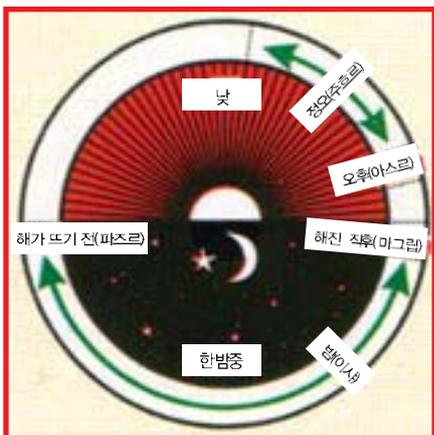
의무예배: 매일 5번의 예배, 금요일 합동 예배, 장례식 예배이다.

개인예배(순나예배): 낮과 밤에하는 자발적인 예배

이드예배: 모든 무슬림은 이돌피뜨르(단식월이 끝나는 다음날) 축제와 이돌아드하(희생제) 축제 때에 이드예배를 합동으로 근행해야 한다.

### 예배시간:

모든 무슬림은 남녀를 불문하고 합법적 면제 사유가 없고 모아서 하거나 일시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 하루에 예배시간을 보여주는 도표

적어도 하루에 다섯 번의 예배를 때 맞춰 드려야 한다. 다섯 번의 예배는 다음과 같다.

1. 해뜨기전 예배(파즈르): 동이 뜬 후와 해뜨기전 계속된다.
2. 정오예배(주흐르): 태양이 정점에서 기울기 시작한 후부터 태양이 지는 쪽으로 중간 지점쯤까지 가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3. 오후 예배(아스르): 정오예배 시간이 끝난 후부터 해질녘까지 계속된다.
4. 해진직후 예배(마그립): 해가 진 직후부터 서쪽 지평선의 붉은 노을이 사라질 때까지 1시간 20분 내지 30분 동안 계속되는 게 보통이다.
5. 밤예배(이샤): 해진직후 예배 시간이 끝난 후부터 동이 뜨기 전까지 계속된다.

이슬람에서 예배시간을 정한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이 방식에 의하면 영적 안식이 신체영양 섭취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편 마음의 평온과 신체의 휴식을 겸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른 아침 예배는 통상 아침 식사 시간대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 정오 예배는 점심 시간대와 일치하며, 이른 오후 예배는 대략 차나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에 해당한다. 해질녘 예배는 저녁 식사시간에 올려지고 밤 예배는 밤참을 먹을 때와 일치한다.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무슬림이 이들 예배를 준행함으로써 하루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루 전체에 영적 인(印)을 찍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종교와 생활을 결합시키고 하루 종일 마음속에 알라의 존재를 의식하며 영적인 기분에 젖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도덕적 위신을 튼튼한 기초 위에 구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무슬림은 자기의 생활 곳곳으로 영적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며, 종교는 활동 분야 전반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상점과 회사에서 가정과 농장에서 공장 작업장에서, 종교가 그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업계 전반으로 종교가 그 빛을 발하는 것이다. 기실 이런 시간표가 돋보이는 이유는 즉, 그것이 알라의 일이며 이슬람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 예배의 순서

## 1) 니얏(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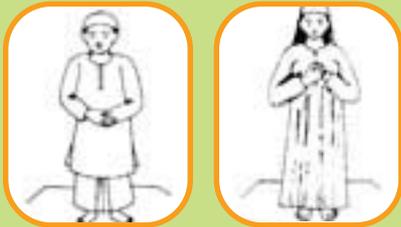
어떤 예배를 몇 라카트(횟수) 올립니다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다. 언제나 고개를 약간 숙임.

## 2) 따끄비르 따흐리마 (거의)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의향의 표시로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컛볼에 닿도록 올림과 동시에 다음을 소리내어 외운다. “알라 후 아끄바르(알라는 위대하시도다)”. 이때 시선은 절을 할 때 코와 이마가 닿을 곳을 내려다본다. 이때 여자는 가슴위에서 양손을 벌리며 “알라 후 아끄바르(알라는 위대하시도다)” 를 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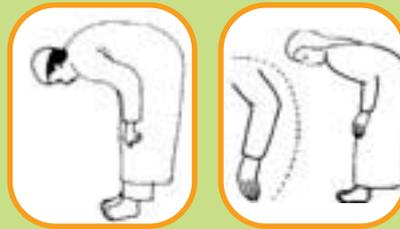
## 3) 끼얌(팔장을 킴)



손을 올렸다 내리는 동작에서 오른손을 왼손위에 포개어 배꼽위에 둔다. 여자는 좀 더 위로 올려 가슴쪽에 대

는데 팔을 겨드랑이에서 벌리지 않는다. 이런 자세에서 꾸란등을 외운다.

## 4) 루꾸 (반절)



예배자는 “알라 후 아끄바르(알라는 위대하시도다)” 를 외우며 양손바닥이 무릎에 닿도록 상반신을 구부린다. 여자는 약간 구부린다. 구부린 자세로 다음을 약 3회 속으로 암송한다. “쑤브하나 랍비얏 아잠 위대하신 알라! 거룩하신 주님에게 영광이 있으시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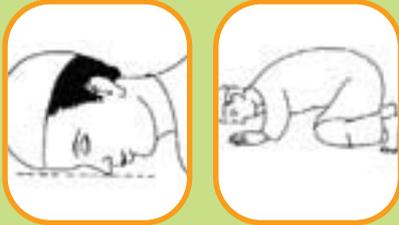
## 5) 꾸아마(허리를 펴 일어섬)



구부린 자세로부터 다음 구절을 외우며 허리를 편다. “쑤미알라 후리만 하미다(알라께서는 그를 위한 찬미를 들으시도다)” 하면 곧 이어서 “랍바나 라 칼 함두(오, 주님이시어! 모든 찬미는 당신에게만 하나이다)” 를 소리내면서 바로 선다. 이맘(예배 인도자)이 예배를 인도할 때

이맘이 “찌미알라 후리만 하미다(알라께서는 그를 위한 찬미를 들으시도다)” 하면 다른 예배자들은 곧 이어서 “랍바나 라 칼 함두(오, 주님이시어! 모든 찬미는 당신에게만 하나이다)” 를 소리내면서 바로 선다.

### 6) 짜즈다(엎드려 절함)



“알라후 아끄바르(알라는 위대하시도다)” 라는 소리를 외우며 엎드려 첫 번째 절을 하는데 이마, 코, (여자는 양팔가지), 양발가락, 양무릎을 바닥에 대어서 “쑤브하나 랍비알 아알라지그하신 주님에게 영광이 있으시기를” (3번)을 속으로 외운 후 “알라후 아끄바르(알라는 위대하시도다)” 라고 하여 앉는다.

### 7) 잘사 (앉음)



“알라후 아끄바르(알라는 위대하시도다)” 를 외우며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공손히 앉는다. 이때 오른발은 세우며 왼발을 뉘여 자세를 낮게 한다. (단)여자는 오른발을 세우지 않고 양발을 뉘여 자연스럽게 앉는다.

두 번째 절은 첫 번째절의 요령과 동일하되 두 번째 절이 끝나면 다음을 외우며 일어선다. “알라후 아끄바르(알라는 위대하시도다)”

\*한번 엎드리면 언제나 절(사즈다)을 두번하고 (제2사즈다까지) 일어서게 되는데 여기까지를 제일 “라카트(횃

수)” 라고 한다.

\*제2 라카트도 위와 같은 동작과 순서로 하는 데 제2 라카트의 두번째 앉은 자세에서 따샤-후드(따히얄두아)를 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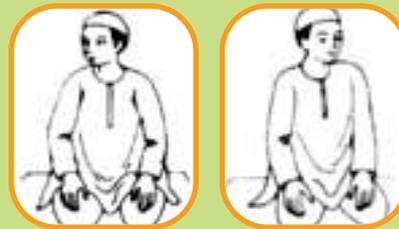
### 8) 따샤-후드

모든 예배는 2 라카트가 기본이 되므로 2 라카트의 두 번의 절이 끝나면 앉은 자세로 “따샤-후드”를 암송한다. 이때 선언시 (아슈하두 알라...부분)에는 오른쪽 둘째 손가락을 세운다.

(1)제2 라카트 뿐인 예배시는 이어서 “앗살라투 알안나비” 를 외우되

(2)제3 라카트 이상 있는 예배시는 마지막 라카트 다음에 앗살라투 알안나비 등을 외운다.

### 9) 쌀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앗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풀라알라의 평화와 자비가 당신에게 깃드시기를” 를 소리내어 외우고 다시 왼쪽으로 한번 더 한다 이때 눈은 어깨를 본다. 이로써 2 라카트 기본 예배가 끝난다.

### 10) 두아(기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한다. 이때 예배자가 양손을 올려 기도한다. 기도는 누구나 느끼는 영감이며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의 감정, 욕망, 슬픔의 진실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분께 도움을 구한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창조주께 고백하게 되는데 이 고백은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척에게 할 수 있는 비밀 훨씬 이상의 것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 밤낮으로 우리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분의 도움과 희망을 갖게 된다. 기도는 우리의 종교와 정신적 자아에 꼭 필요한 생혈(生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아마도 깊은 상심에 빠져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압도당해 버릴지도 모른다.

예배가 끝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해도 된다.

“랍바나~아~피나~핏둔야~하싸나, 와필 아키라띠 하싸나, 와끼나~아다~반나~르.

(오, 주님이시여!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불지옥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랍바나~라~뚜지구 꼴루~바나~, 바아다 이드 하다 이따나~, 와하블라나~밀라둔까 라흐마탄 인나까 안팔 와하~브.

(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저를 인도하신 후에 제마음이 믿음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당신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나니)

“랍바나~잘람나~안 쫓싸~, 와일람 따그피 룰라나~와따르함나~, 라나꾸~난나 미날카~씨란.”

(오, 알라, 제 스스로 과오를 범했나이다, 만일 당신께서 제게 자비와 관용을 베푸지 않으신다면 진실로 저는 자멸할 것이옵니다.)

# 월간 소식(Monthly News)

## ★서울중앙성원

서울중앙성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아랍어, 목요일 하디쓰, 금요일 이슬람 교리 및 배경, 토요일 꾸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서울 중앙성원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2-21  
전화: (02) 794-7307, 793-6008

## Seoul Central Masjid

Seoul Central Masjid established Quran, Hadis, Islamic and Arabic classes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s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Seoul Central Masjid.

Date: Every Wedne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Arabic  
Lecturer: Abdul Rahman Lee

Date: Every Thur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Hadith

Date: Every Fri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Basic Islamic Studies  
Lecturer: Miss. Hiba

Date: Every Wednesday, 16:00~17:30  
Topic of Lecture: Quran  
Lecturer: Ali

Address: Seoul Central Masjid  
732-21, Hannam-dong, Yongsan-ku, Seoul,

## ★전주성원

전주성원에서는 매일 아스르예배 후에 이슬람교리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전주성원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전화: (063) 243-1483 우편번호 561-832

## Jeonju Masjid

Jeonju Masjid established Islamic lecture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Jeonju Masjid.

Date: Every after asr praying.  
Topic of Lecture: Basic Islamic Studies  
Lecturer: Abdul Wahab Zakil  
Address: 1567-10, 2-ga Inhu-dong,  
Duk-jin Gu, Chonju,

## ★파주성원

파주성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이사 예배후에는 꾸란의 해석,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꾸란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파주성원 주소:  
경기도 파주시 원릉면 영태리 421-9

우편번호 413-813  
전화: (031) 946-2110  
Fax: (031) 946-2126  
E-mail: pajumasjid@yahoo.com

## Paju Masjid

Paju Masjid established Quran tafsir Quran lecture for everyone. This kind of lecture will be held every week regularly at Paju Masjid.

Date: Every Saturday after I nam  
Topic of Lecture: Quran Tafsir  
Date: Every Sunday (11:00 am)  
Topic of Lecture: Teaching Quran

## ★부산성원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0-1 우편번호 609-811  
전화: (051) 518-9991  
(051) 518-9992

부산성원에서는 매월 아래와 같은 정기강좌 및 모임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 매주 토요일 오후 5:00~6:30  
-일반인 대상 아랍어및 이슬람교리 강좌
- \* 매주 일요일 오전 10:30~12:00  
- 외국무슬림 대상 한글교실 운영
- \* 매주 일요일 오후 3:00~5:00  
-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 \* 매주 월요일 오후 6:30~8:00  
-일반인 대상 터키어 및 이슬람교리 강좌
- \* 매주 일요일 주후르 예배후  
-재부 인도네시아 무슬림회 우스라이팅  
-재부 방글라데시 무슬림회 우스라이팅
- \* 매월 마지막 토요일  
- 무슬림가족 동산모임

\*Date: Every Saturday, 17:00~18:30  
Topic of Lecture: Arabic and Basic Islamic Studies

\*Date: Every Sunday, 10:30~12:00  
Topic of Lecture: Teaching Korean language for foreign muslims

\*Date: Every Sunday, 15:00~17:00

Topic of Lecture: English teaching for children

\*Date: Every Sunday after Zuhur Prayer

Meeting of Indonesian muslims

Meeting of Bangladesh muslims

\*Every last Saturday of month family climbing

Address: Busan Masjid  
30-1 Namsan-dong, Kemjeong-ku, Busan

## ★광주성원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리 48-9  
우편번호 464-807  
전화: (031) 761-3424  
광주성원에서는 금요일 합동예배는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Address: Kwangu Masjid

48-9 Yeokri Kongju-youb  
Kwangu-jam Kyung-do  
Jumrah Khudra start at 13:00

## ★안양성원

경기도 안양시 인양5동 618-132  
전화: (031) 444-7757 우편번호 430-828

## Daily Program

-After Asr prayer Hadis lecture  
-After Facr Prayer Teaching Quran

## Weekly Program

-Every Saturday night at 10:15~11:00 pm, speech about Islamic life  
-Every Sunday after facr prayer teaching how to prayer, udu, azaan etc.

## Monthly Program

-Every month last saturday night, at 9:00~9:30 pm, question-answer meeting  
-at 10:15~11:15 pm, teaching Quran  
-at 11:15~11:35 pm, lecture about Islamic life  
-Kiamul Lail (Salatul Tahazzud)  
-Discussion about almighty Allah  
-After Facr prayer teaching Quran  
-After Zohr prayer Hadis studies  
-After Asr prayer discussion about Islam

Address: Anyang Masjid  
618-132, Anyang 5-dong,  
Anyang, Kyung-do

## ★제주임시성원(Jeju Masjid)

제주시 노형동 939 정한오피스텔 1215호  
전화: (064) 712-1215 우편번호 690-802

## ★자미아 마스지드 우스만

이슬람 센터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02-6번지  
전화: (053) 523-2171  
JAMIA MASJID USMAN  
ISLAMIC CENTER TAEGU  
#202-6, Chuk Chan-dong, Dal Seo-gu, Daegu,  
Korea.  
Tel: (053) 523-2171



# Contents

신리와 이슬람 문명의 만남	2
이슬람을 배움시다 '인간의 참조의 위엄'	4
'고등화된 공기 조절 장치, 완벽한 지각기관인 피부'	5
이번 달의 질문	6
Question of Month	7
호주에서의 이슬람	8
Islam in Australia	11
이슬람에서의 예배(살라)	15
월간 소식(Monthly News)	19

## ● 2003년 8월 예배시간표 (Timetable for Prayers August 2003)

Date	Day	Fajr	Sunrise	Zohr	Asr	Magrib	Isha
Aug 1	F	3:51	5:34	12:38	16:28	19:42	21:18
2	Sa	3:53	5:35	12:38	16:28	19:41	21:17
3	Su	3:54	5:36	12:38	16:28	19:40	21:15
4	M	3:55	5:37	12:38	16:27	19:39	21:14
5	Tu	3:57	5:38	12:38	16:27	19:38	21:13
6	W	3:58	5:39	12:38	16:27	19:37	21:11
7	Th	3:59	5:40	12:38	16:27	19:36	21:10
8	F	4:01	5:41	12:38	16:27	19:35	21:09
9	Sa	4:02	5:42	12:38	16:26	19:34	21:07
10	Su	4:03	5:42	12:37	16:25	19:32	21:05
11	M	4:04	5:43	12:37	16:25	19:31	21:04
12	Tu	4:05	5:44	12:37	16:24	19:30	21:02
13	W	4:07	5:45	12:37	16:24	19:29	21:01
14	Th	4:08	5:46	12:37	16:24	19:28	21:00
15	F	4:10	5:47	12:37	16:24	19:27	20:58
16	Sa	4:10	5:47	12:36	16:22	19:25	20:56
17	Su	4:12	5:48	12:36	16:22	19:24	20:54
18	M	4:13	5:49	12:36	16:22	19:23	20:53
19	Tu	4:14	5:50	12:36	16:21	19:22	20:52
20	W	4:15	5:50	12:35	16:20	19:20	20:49
21	Th	4:16	5:51	12:35	16:19	19:19	20:48
22	F	4:18	5:52	12:35	16:19	19:18	20:46
23	Sa	4:19	5:53	12:35	16:19	19:17	20:45
24	Su	4:20	5:54	12:34	16:17	19:14	20:42
25	M	4:21	5:55	12:34	16:17	19:13	20:41
26	Tu	4:23	5:56	12:34	16:17	19:12	20:40
27	W	4:24	5:57	12:34	16:16	19:11	20:38
28	Th	4:24	5:57	12:33	16:15	19:09	20:36
29	F	4:26	5:58	12:33	16:14	19:08	20:34
30	Sa	4:27	5:59	12:33	16:14	19:07	20:33
31	Su	4:29	6:00	12:33	16:13	19:06	20:32

### [알림]

이 잡지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거나 또는 이 잡지의 발전을 위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mail: muslimkorea@hanmail.net

아름다운 이슬람

무슬림 월보(MUSLIM MONTHLY MAGAZINE)  
NO. 7 히즈라 주마다 알-싸니야 1424 · 서기, 2003. 8. 1  
발행처: 한국국제무슬림 학생연합회

 한국국제무슬림 학생연합회  
110-614 서울광화문 국제국 사옥 1476호  
Homepage: <http://www.muslimkorea.net> E-mail: [muslimkorea@hanmail.net](mailto:muslimkorea@hanmail.net)  
INTERNATIONAL MUSLIM STUDENTS ASSOCIATION OF KOREA  
K.P.O. BOX 1476 SEOUL/SOUTH KOREA

● 이 예배시간표는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안양, 수원, 인천, 의정부, 광주 등 경기도 지방과 전라북도의 전주 등에서 허용되며 부산시는 이 시간표보다 5분이나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는 2분정도 후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갖기 위해서 가까운 성원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This time table for Gyeonggi-do Province like Seoul, Incheon, Anyang, Uijeongbu, Gwangju and also, Chungcheongnam-do, Jeollabuk-do and Jeollanam-do Provinces are same. But Busan city is 5 minutes before this time and Jeju Island is about 2 minutes after this times. For further more information, call nearest mosque.

- The direction of Qiblah in Korea approximately 260° Latitude West.
- Adhan on Jumaah will be called at 13.00 o'clock.



- 책이 필요하신 분은 우편비만 부담하시면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발행처: 한국국제무슬림 학생연합회